

코오롱, 멤브레인 사업 본격추진

상·하수처리용 CLEANIL-S 출시 ... 2010년 매출 1000억원 목표

코오롱은 상하수도 수처리용 고강도 멤브레인(제품명 CLEANFIL-S)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나선다고 6월21일 발표했다.

코오롱은 정수기용 멤브레인(세균·박테리아를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 생산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하수도용 멤브레인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또 자체 개발한 상하수도 수처리용 고강도 멤브레인 출시로 국내 소규모 상하수도 시설의 수입제품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은 2010년 상하수도 수처리용 멤브레인 사업에서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코오롱은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상하수도 수처리용 멤브레인 사업에 뛰어 들었기 때문에 2010년까지 5000억원으로 성장할 국내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6/22>